

유교의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이상호**

국문초록

산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갈래 길이 있을 수 있다. 특정한 길이 옳다고 볼 수 없다. 올라가는 길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유교에서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의예지(仁義禮智) 본성을 인성으로 파악한다. 유교 인성 교육은 크게 공자, 맹자, 순자의 인성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자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공감 능력 중시, 인정의 자연스러움에 바탕을 둔 인성 교육, 자율성 강조, 제자들의 수준에 맞춘 인성교육 등을 제시했다. 맹자는 사단(四端) 확충을 통한 인의예지 회복, 호연지기 회복을 통한 대인(大人)의 삶 등을 중시했으며, 순자는 사회 혼란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예의 형식이나 절차와 같은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악한 본성을 착한 쪽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자, 맹자, 순자가 살았던 시대와 상황은 오늘날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3명의 사상이 혼란했던 사회를 수습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려고 제시한 인성교육의 소중한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기에 충분히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인성교육, 인의예지(仁義禮智), 도덕적 공감 능력, 자율성, 사단(四端) 확충, 인위적인 노력

* 이 논문은 2016년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과 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의 공동 학술 심포지움(주제: “인성교육-자율학기제 어떻게 해야 하나”, 2016년 12월 16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및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

I. 서론

2014년 12월 29일 국회는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립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종합계획에 따라 17개 시·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개별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된다. 전국의 초·중·고교는 매년 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인성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는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사범대학·교육대학교 등 교원 양성기관은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인성 교육에서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맹자와 같은 입장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인간의 자율성을 통한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둘 것이고, 순자와 같은 입장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믿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불신에 따른 치밀한 준비와 경계를 중시하고, 예절의 형식이나 외적인 통제를 통한 인성교육을 시행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교에서 말하는 人性의 의미, 공자, 맹자, 순자가 말하는 유교의 인성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유교의 인성 교육을 소개하면서 인성 교육이 지양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II. 인성과 인성교육의 내용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명시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본 장에서는 유교에서 말하는 人性의 의미, 공자, 맹자, 순자의 인성 교육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유교에서 인성(人性)의 의미

일반적으로 유교에서는 인성(人性)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仁)은 사랑하는 이치요, 의(義)는 마땅히 하는 이치요, 예(禮)는 공손히 하는 이치요, 지(智)는 분별하는 이치이니, 이 네 가지를 인성(人性)이라 이른다.*

유교에서 인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의예지(仁義禮智) 본성을 의미한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늘의 이치(天理)를 성품으로 부여받았다.** 만물은 근본적으로 본성대로 하늘의 명령에 따라서 각자 주어진 본성대로 삶을 유지하고 있다. 하늘은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원형이정(元亨利貞)의 법칙을 부여했고, 인간에게 인의예지 본성을 부여했다. 원(元)은 시작, 처음, 으뜸을 의미하며 계절로는 땅에서 싹이 돋아나오는 봄에 해당한다. 봄에 만물의 싹을 틔우듯이 생겨나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했다.형(亨)은 형통한다는 의미이며, 계절로는 나무가 성장하고 녹음이 우거진 여름에 해당한다. 여름에 만물이 왕성하게 번식하는 것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로를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 리는 벼 화(禾)와 갈 도(刀)가 결합한 글자이다.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시절 가을이 되면 벼가 익어 반달 돌칼로 나락을 수확했는데, 반달돌칼로 잘라간 부분이 자신에게 이로운 부분이었기에 이롭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가을에는 결실을 거두어야 하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貞)은 굳게 지킨다는 의미로 계절에는 겨울에 해당한다. 겨울이라도 날씨가 따뜻한 때가 있기 마련이다. 이 때 땅 속의 씨앗이 봄인 줄 알고 싹을 틔워 나오면 매서운 추위에 얼어 죽기 마련이다. 따라서 봄이 올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 정(貞)의 시절에는 겨울의 땅 속에 숨어 있는 씨앗처럼 설불리 나가지 말고 잠시 참고 기다리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천리(天理)가 무생물까지 포함한, 만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질이라면 성(性)은 천명이 생물에 작용한 것으로 사람, 동물, 식물 등 모든 생물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질을 의미한다. 인(仁)은 만물의 공통적인 존재의 본질을 사람에 국한시켜서 말한 것이며, 인간의 본성, 본래부터 인간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줄여서 표현한 말이다. 인의예지 본성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이것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仁은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원리를 의미하며 측은지심을 확충하여 회복할 수 있는 덕목이다. 의(義)는 사물의 당연한 이치, 가장 옳고 마땅한 이치로 수오지심을 확충할 때 회복할 수 있다.예(禮)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그에 합당한 형식을 갖추어 표현하는

* 『小學』 「小學題辭」 陳祚 註：仁者 愛之理 義者 宜之理 禮者 恭之理 智者 別之理 四者 謂之人性.

** 『中庸』 제1장：天命之謂性.

것으로 사양지심을 확충할 때 회복할 수 있다. 지(智)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천부적인 능력으로 시비지심을 확충할 때 회복할 수 있다. 인간은 이 4가지 본성대로 살 때 인간다운 삶을 영위했다 할 수 있고, 인성교육 또한 사람들 저마다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의예지 본성을 회복하여 사람답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있다.

2. 공자(孔子)의 인성 교육

공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는 경쟁이 치열하고 사회적으로 약육강식 풍조의 유행, 빈부 격차는 심화, 윤리 의식 약화 등으로 천하가 큰 혼란에 빠졌던 시대였다. 공자는 천하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전으로 인(仁)을 제시하였다. 공자가 말한 ‘인(仁)’은 인의예지(仁義禮智) 덕을 총칭한 말로서 사람 됨됨이며,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도덕적 원리이고 사랑의 이치를 의미한다. 공자가 제시한 인성교육 또한 인(仁)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공감 능력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다음 내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仁이란 사람 됨됨이니 부모와 하나됨이 으뜸이다.*

효도와 공경은 仁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仁者の 부류에 속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나중에 하면 仁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 베풀지 말라.****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도덕적 원리인 인(仁)을 가장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부모 자녀간이거나 형제자매의 관계이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처럼 사랑한다.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하기 싫은 일은 자녀에게 미루지 않고 당신이 먼저 하며, 이익이 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동생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형의 마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부모와 형의 헌신적이고 고마운 마음을 몸소 체득하여

* 『中庸』 제20장：仁者 人也 親親 爲大.

** 『論語』 「學而」 제2장：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 『論語』 「雍也」 제20장：問仁 曰仁者先難而後獲 可謂仁矣.

**** 『論語』 「衛靈公」 제23장：子貢問曰有一言以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형을 공경하게 되면, 그 마음을 미루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에게 까지 그 마음을 확충할 수 있게 되고, 설령 일이 잘못되어도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은 잘못이 없는지 반성부터 먼저 하게 된다.*

둘째, 인의예지 본성이 곧고 바르게 발휘된 인정의 자연스러움에 바탕을 둔 인성 교육이란 점이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에 대한 공경이다. 부모형제와 한마음을 체득하게 되면 마음의 안식처를 얻게 되고, 자신이 사랑받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헤아릴 수 있는 도덕적 공감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도덕적 공감 능력이 발달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남에게 미루지 않고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수행하고, 이익이 되고 쉬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거나 배려를 하게 된다. 인정의 자연스러움에 바탕을 했기 때문이다. 인정의 자연스러움은 공자와 초나라 섭공이 나눈 다음 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섭공 : 우리나라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자가 있으니 그의 아버지가 양을 가로챘는데 아들이 증명을 하였습니다.

공자 : 우리나라에 정직한 사람은 이와 다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숨겨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주니 정직함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초나라의 섭공(葉公)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정직’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공자에게 있어서 ‘정직’은 천부적 본성이 곧고 바르게 발휘되어 본마음이 왜곡되거나 굴절됨이 없이 그대로 실천하는 솔직함을 말한다.*** 천부적 본성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 곧고 바르게 발휘되면 본마음 그대로 나오게 되고, 천부적 본성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 왜곡되거나 굴절되면 아버지의 잘못도 신고하여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 이기적 욕심이 나오게 된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양을 훔쳐 왔을 때 아들의 본마음은 아버지를 숨기려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작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공자는 정직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마음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되면 설령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양을 훔쳐왔다 하더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여 부모가 처벌을 받도록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의 잘못이 자식에 의해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를 설득하여 양 주인에게 돌려주는 다른 방법을 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고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궁리하여 찾

* 『論語』 「衛靈公」 제23장 : 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

** 『論語』 「子路」 제18장 : 葉公語孔子曰吾黨 有直躬者 其父攘羊 而子證之 孔子曰吾黨之直者 異於是 父爲子隱 子爲父隱 直在其中矣.

*** 이기동(2010), 『論語講說』, 성균관대학교출판부, p.203.

을 것이다.*

셋째, 자율성을 강조한 인성교육이란 점이다. 공자는 인간의 타율성에 따른 한계와 자율성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백성을 인도하기를 권모술수로써 하고 질서 잡는 것을 형벌로써 하면, 백성들은 형벌만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함이 없다. 인도하기를 덕으로써 하고 질서 잡는 것을 예로써 하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함이 있게 되고 또 마음 씀씀이를 바르게 할 것이다.**

인간의 자율성을 믿지 못하고 모든 일을 권모술수로 백성을 속이고 형벌이나 법으로 통제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백성들은 반발하게 된다. 형벌이나 법은 허점이 있기 마련이다. 백성들은 법망만 피하면 무슨 것이든 하게 되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게 되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의예지 본성이 곧고 바르게 발현되도록 하는 마음의 능력인 덕으로 인도하고 예절을 통해 질서를 잡도록 해야 한다. 예절은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을 그에 합당한 형식을 갖추어 표현한 것이다. 덕과 예로 인도하고 질서를 잡게 되면 사람들은 양심에 어긋난 일을 부끄러워하고 하지 않게 되면 사람으로서 품격이 생겨 마음이 바르게 된다.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 또한 무조건 교칙을 어긴 학생에 대한 처벌 위주의 방법보다 자신의 양심에 어긋난 일을 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키워주고, 같은 잘못을 두 번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며, 스스로 반성하여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자들의 수준에 맞춘 인성교육을 실시했다. 인삼은 몸의 체온이 찬 사람에게는 좋은 약이 될 수 있지만 평소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인삼보다 더덕이 대용으로 사용된다. 공자 또한 제자들의 개성과 자질을 잘 파악하여 그들의 수준에 맞게 인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준에 맞추어 인성 교육을 잘 했다는 것은 顔子の 다음 회고에서 엿볼 수 있다.

안연(顔淵)이 ‘후우!’ 하고 탄식하며 말하였다.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아지고, 뚫을수록 더욱 여물어지며, 쳐다보면 앞에 있었는데 어느덧 뒤에 있도다. 선생님께서는 순조롭게 남을 잘 이끌어주신다. 나를 넓혀주시기를 문(文)으로써 하시고 나를 집약시켜주시기를 예(禮)로써 하셨습니다. 그만두고자 해도 그만둘 수 없어 이미 내 재주를 다하였으나, 세운 바가 우뚝한 언덕 같아서 비록 쫓아가려 해도 방도가 없다.****

* 이상호(2015), 「공자의 윤리 상담에 관한 연구」 『東洋哲學研究』 第81輯, p.51.

** 『論語』 「爲政」 제3장 : 子曰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 『論語』 「學而」 제8장 : 過則勿憚改.

**** 『論語』 「子罕」 제10장 : 顔淵 喟然 歎曰 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在後 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 欲罷不能 既竭吾才 如有所立卓爾 雖欲從之 末由也已.

유아는 대개 9 ~ 24개월 사이에 걷기 시작한다. 욕심이 지나친 부모는 다른 아이보다 빨리 걷도록 하기 위해 누워있는 아이를 일으켜 세워 걸음마 연습을 강제로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자칫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걸음마 연습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자신의 성취에 따른 기쁨을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안자(顔子)의 회고처럼 공자는 제자들의 수준을 고려하면서 인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자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후에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차근차근 잘 이끌어 주었다. 마치 태권도 1단을 지도할 때에는 1단 수준에 맞게 지도해주고, 1단을 탄 후에는 다시 2단의 수준에서 지도해 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공자의 인성교육처럼 사람을 이끌 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文으로 넓혀주고 예(禮)로써 집약시켜 이끌어주게 되면 배우는 사람은 스스로 기쁨을 만끽하게 되어 그만둘 수 없게 된다. 공자가 제시한 인성교육의 최종 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이다. 성인이 되는 것을 배움의 목표로 삼았던 안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자는 평생 본받아야 할 역할 모델로서 우뚝한 언덕 같았으며, 보면 볼수록 더욱 높아지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멀어지는 선망의 대상이면서 위대한 존재 그 자체였다. 교사가 공자와 같은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처방을 제시할 수 있는 높은 도덕성을 갖춘 정신적 멘토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도덕적 공감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학생 스스로 삶의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맹자(孟子)의 인성교육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으며, 이기적인 욕심과 주변 환경에 의해 악해진 마음도 수양을 통해 원래의 착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맹자는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인의예지 본성은 밖으로부터 나를 녹여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본래 있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뿐이다.**

나에게 있는 사단(四端)을 다 넓혀서 가득 채울 줄 알게 되면 불이 처음 붙는 것과 같고 물이 처음 흐르는 것과 같은 것이니 진실로 능히 채우면 사단(四海)을 보전할 수 있지만 진실로 채우지 못한다면 부모를 섬길 수도 없다.***

* 『論語』 「學而」 제1장 : 學而時習之不亦說乎.

** 『孟子』 「告子 上」 제6장 : 仁義禮智 非由外鑠我也. 我固有之也 弗思耳矣 故 求則得之 舍則失之.

군자가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번지르르하게 얼굴에 나타나고 등에 가득하며 온 몸에 퍼져서 말을 하지 않고서도 남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다.*

맹자에 의하면 인의예지 본성은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내면에 구비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심과 주변 환경에 자신의 본마음을 놓아버리고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의예지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단(四端)을 확충해야 한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지하수가 주위 환경에 의해 더러워졌을 경우 나쁜 환경만 개선해 주면 지하수는 계속 맑은 물이 계속 흘러나오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쁜 환경과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 악해지더라도 사단 확충을 통해 마음속에 본마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기적 욕심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본마음 그대로 삶을 영위하게 된다. 본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것을 선(善)이라고 한다.*** 선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쌓아나가면 믿음직스럽게 되고, 마음이 선으로 가득 차게 되면 착한 마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번지르르하게 얼굴에 나타나고 등에 가득하며 온 몸에 퍼져서 말을 하지 않고서도 남으로 하여금 알게 되며 경지에 도달하게 되고,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심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면 ‘나’라는 고정 관념이 사라져서 남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남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남을 자기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솟아 나오기 된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씨가 확대되면 남의 불쌍한 면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발현되어 남을 돕게 되고, 남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여기게 되고, 남의 슬픔과 괴로움을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처럼 여겨 함께 마음 아파해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베풀지 않게 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남도 하고 싶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남에게 양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는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되며, 남의 비양심적인 행동을 보았을 때는 미워할

*** 『孟子』 「公孫丑告章句 上」 제6장 : 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若火之始然 泉之始達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苟不充之 不足以事父母.

* 『孟子』 「盡心章句 上」 제21장 : 君子所性 仁義禮智 根於心 其生色也 睟然見於面 盎於背 施於四體 四體不言而喻

** 『孟子』 「告子章句 上」 제11장 : 哀哉 人有鷄犬放則知求之 有放心而不知求.

*** 『孟子』 「盡心章句 下」 : 可欲之謂善.

**** 이기동(2015), 『진리란 무엇인가』, 21세기북스, p. 283.

줄 알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 발휘되어 옳은 일은 자신이 손해나 희생을 당하더라도 굳게 지켜나가고 옳지 않은 일은 설령 자신이 이익을 보더라도 추구하지 않게 된다. 마음의 수양을 통해 의(義)를 지속적으로 행하면 호연지기를 회복할 수 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으로는 천부적인 본성이 단절되거나 왜곡된 감정으로 발휘되지 않고 굳게 발휘되도록 하는 노력하는 직양(直養), 의(義)를 지속적으로 갖고 쌓아 나가는 집의(集義), 물욕이 일어나지 않는 야간의 평정하고 맑은 우주적 기운을 보존하는 존야기(存夜氣)의 방법이 있다.* 호연지기(浩然之氣)가 몸에 충만하게 되면 인간 본연의 모습에 가장 충실한 대인(大人)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천부적 본성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천명(天命)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앞이 더욱 깊어져 어디를 가든지 편안해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남과 내가 천명(天命)에 의해서 하나로 연결된 존재임을 알게 되어 ‘나’와 ‘남’을 구별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남의 불행을 가만히 보지 않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발휘되어 돕게 되며, 도움을 받은 사람 또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게 되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맹자 성선설이 오늘날 인성교육에 시사해 주는 점은 누구나 마음의 수양을 통해 노력을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교사가 학생의 사단(四端)을 확충하여 인의예지 본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하며, 자율성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믿어주는 자세가 요구된다. 영화 쿵푸 팬더 다음 대화에서 맹자가 제시한 인성 교육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시푸 : 대사부님. 대사부님. 나쁜 소식입니다.

우그웨이 대사부 : 소식이 있을 뿐 좋고 나쁜 것은 없다네.

시푸 : 타이링이 감옥을 탈출해서 오고 있습니다.

우그웨이 대사부 : 그래 나쁜 소식이군. 만일 자네가 용의 전사를 믿지 못한다면
말이야!

시푸 : 그 팬더요? 대사부님. 그 녀석은 용의 전사가 아닙니다.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요. 그냥 우연이었요.

우그웨이 대사부 : 세상에 우연은 없다네.

시푸 : 압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 이상호(2005), 「맹자의 호연지기 함양에 관한 연구」 『東洋哲學研究』 第41輯, p.263.

** 『周易』 「繫辭傳 上」 제4장 : 與天地相似 故 不違 知周乎萬物而道濟天下 故 不過 旁行而不流, 樂天知命 故 不憂 安土 敦乎仁 故 能愛.

우그웨이 대사부 : 그래. 어쨌든 우연은 없다네.

시푸 : 세 번

우그웨이 대사부 : 여보게 시푸. 팬더는 자신의 운명을 못 받아들일 거야. 물론
자네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나
무를 보게 사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지
않아. 때가 되기 전까지는.

시푸 :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열매를 떨어지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씨를
심어 뿌리를 내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우그웨이 대사부 : 그래.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든 복숭아씨는 복숭아 나무가
되네. 사과나 오렌지가 열리기를 바래도 열리는 것은 복숭아지.

시푸 : 하지만 복숭아로는 타이령을 물리치지 못해요.

우그웨이 대사부 : 가능할지도 몰라. 자네가 잘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믿어만
준다면 .

시푸 : 하지만 어떻게. 어떻게요. 도와 주십시오. 대사부님.

우그웨이 대사부 : 아니야. 그냥 믿는 수밖에. 약속해 주어 사부. 믿겠다고.
그 아이를.

시푸 : 믿도록 노력하죠.

20년간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타이령이 절치부심으로 감옥을 탈출하여 온다는 소식을 접한 시푸는 우그웨이 대사부에게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의논한다. 돌아온 대답은 용의 전사인 팬더를 믿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푸는 팬더가 타이령을 물리칠 수 없다고 부정한다. 우그웨이 대사부는 팬더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시푸에게 ‘잘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믿어만 준다면 팬더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기서 우그웨이 사부의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엿볼 수 있다. 그 후로 시푸는 우연히 팬더가 과자와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팬더의 장점을 활용하여 무예를 연마시켜 용의 전사로 만든다. ‘잘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믿어주어라’는 우그웨이 사부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맹자 또한 사단 확충을 통해 인의예지 본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무한한 신뢰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학교 현장에서도 교사는 새싹이 잘 자라도록 마음을 쏟아 붓듯이 정성을 다해 잘 보살펴주고,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이끌어주며, 학생 개개인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호뭇한 모습으로 지켜봐 주도록 해야 한다.

4. 순자(荀子)의 인성교육

맹자(BC372년 ~ BC289)보다 늦게 태어난 순자(BC298 ~ BC 238)는 맹자의 성선설로는 극도로 혼란스럽고 피폐해진 천하의 혼란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파악하였다. 순자(荀子)에 의하면 인간은 하늘과 분리된 개체이고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 근거를 순자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니 그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지금 사람들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쟁탈이 생기고 사양함이 없어진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며 충성과 믿음이 없어진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귀와 눈의 욕망이 있어 아름다운 소리와 빛깔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음란이 생기고 예의와 아름다운 형식이 없어진다. 그러니 사람의 본성을 따르고 사람의 감정을 좇는다면 반드시 다투고 뺏게 되면 분수를 어기고 이치를 어지럽히게 되어 난폭함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따른 교화와 예의의 교도가 있어야 하며, 그런 뒤에야 서로 사양하게 되고 아름다운 형식을 갖게 되어 다스림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며 그것이 선하다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순자(荀子)가 파악한 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육체적 욕구 및 생리적 욕구를 의미한다.*** 즉,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하고, 피곤하면 쉬고자 하며, 먹은 만큼 배설하고자 하며, 이성을 그리워하는 등과 같이 육체를 존속시키려는 욕구를 말한다. 인간이 음식을 먹는 것은 몸을 보존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양심을 실천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이다. 음식이 인간에게 주는 이러한 본래 의미를 망각하고 단지 맛만을 추구하다 보면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인 인간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남녀 간의 성적(性的)인 결합 또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도외시킨 채 육체적 쾌락만을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여 인간을 음란하고 방탕하게 만든다. 욕망은 인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칫 잘못된 방향을 치닫게 되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게 된다. 서로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갈등이나 경쟁 관계가 심화되면 양보하기 보다는 투쟁으로 이어지고 투쟁이 확산되면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

* 『荀子』 제 23편, 性惡 : 人之性惡 其善者僞也. 今人之性 生而有好利焉 順是 故 爭奪生而辭讓亡焉. 生而有疾惡焉 順是 故 殘賊生而忠信亡焉 生而有耳目之欲 有好聲色焉 順是 故 淫亂生而禮義文理亡焉. 然則從人之性 順人之情 必出於爭奪 合於犯分亂理而歸於暴. 故 必將有師法之化禮義之道. 然後出於辭讓 合於文理而歸於治 用此觀之 然則人之性惡 明矣 其善者 僞也.

** 『荀子』 제22편 正名 : 生之所以然者 謂之性.

*** 『荀子』 제22편 禮論 : 人生而欲.

순자는 사회 혼란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악한 본성을 착한 쪽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인위적인 노력은 외적 규제인 예의 형식과 절차를 의미한다. 예의 형식과 절차 제정을 통한 경계를 정하고, 도량형 통일 등을 통해 서로 다투지 않게 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순자의 성악설적 사고방식의 장점으로는 치밀성 발달을 들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악하다고 전제하게 되면 남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남을 믿지 않고 철저히 대비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예절의 형식 강조에 따른 법치주의가 발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불신하게 자신만을 위한 육체적 쾌락 추구에 탐닉하게 된다. 순자는 인간에 대한 불신과 육체적 쾌락 추구를 방지하게 되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쟁탈 · 질시 · 미워함 · 음란 등이 생겨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파악한다. 컵에 흙탕물이 들어 있으면 컵 스스로는 정화를 할 수 없고, 사람이 외부에서 깨끗한 물을 컵 속에 계속 부어 넣어야만 정화가 된다. 순자가 파악한 인간 또한 본성이 악하고 사회적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 투쟁하지 않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도 예(禮)라는 객관적 규칙과 형식을 만들어 그것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예(禮)를 지키지 않으면 보완책으로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法)이 필요하고,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가 요청된다. 순자는 인간에 대한 불신과 육체적 쾌락 추구를 방지하게 되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쟁탈 · 질시 · 미워함 · 음란 등이 생겨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파악한다. 순자가 파악한 인간은 본성이 악하고 사회적 자율성이 없다. 따라서 이익을 두고 서로 투쟁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도 예(禮)라는 객관적 규칙과 형식을 만들어 그것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예(禮)를 지키지 않으면 보완책으로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法)이 필요하고,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가 요청된다.

순자가 말한 성악설적 사고방식의 단점으로는 첫째, 서로에 대한 불신 조장과 이기심 폐해를 들 수 있다. 서로 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정적이나 경쟁자 제거, 경쟁자를 굴복시켜 자신의 부하로 삼기, 힘이 부족한 자신이 경쟁자의 부하가 되는 방법, 힘이 비슷한 경우 협상을 통한 공존 모색 등이 있다. * 불신 풍조가 팽배한 사회에서 경쟁에 임하는 태도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서게 된다. 그 결과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 ‘너 죽고 나 살자’는 등의 극단적 이기심이 나오게 된다. 님비 현상, 핼피 현상 등 지역이기주의 등도 이기심 폐해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인간의 자율성이 훼손되어 타율적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위적인 노력인 예

* 손병욱 외(2016), 『융복합 시대의 인간과 윤리』, 경상대학교출판부, 경남 : 진주, p.74.

나 법, 제도 등을 통해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 복종하고 순응하는 타율적 존재로 전락하기 쉽다.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책 제목에서 타율적 존재로 전락한 인간의 나쁜 면을 경고하기도 했다.

셋째, 예의 형식을 강조하고 법과 제도의 제정을 통해서만 사회를 다스리려는 점을 악용하는 사람은 예절이나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법망의 태두리만 벗어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비양심적인 일이나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의 인성교육은 맹자가 제시한 인성교육보다 순자가 제시한 인성교육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상벌점제를 통한 인성 교육 강화 정책이다. 상벌점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을 근절하고 학생의 인성 교육 및 생활지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즉, 학생의 기본생활습관과 관련하여 학생다운 행동 규범이나 생활 수칙을 학교,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고 학생의 실천 여부를 평점화하여 관리하는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이다. 착한 행동이나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실천하면 상점을 부여하고, 교육 공동체가 만든 ‘학생 생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항목에 따른 벌점을 부여하며, 지도점수가 많은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봉사활동이나 자구노력 과제를 스스로 이행하면 Green Point를 주어 회복점수만큼 지도 점수를 줄여줌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교정해 나가도록 하고, 심할 경우 학생자치법정과 연계하여 학생들 스스로 긍정적 위주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여 이행 하도록 한다. 칭찬점수가 많은 학생은 학교 규정에 의하여 시상하며, ‘SMS 문자서비스 시스템’ 연계하여 칭찬점수 및 지도점수 부여 상황을 실시간 학부모에게 자동으로 알려주게 되어있다. 그러나 벌점을 상점으로 상쇄할 수 있으므로 설령 잘못된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신체적 접촉이 없어졌을 뿐 여전히 학생을 스스로 도덕적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수 없는 자율성이 부족한 타율적 존재,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비교육적 제도’라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리고 상점 항목에 명시된 내용만 하고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하지 않는 것으며, 벌점 항목에 명시하지 않은 나쁜 행동은 얼마든지 행하는 등 이해득실에 의해 행동하는 인간으로 양성하고 있다. 설령 벌점이 누적되어 자치 법정에 서게 되더라도 담당하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형식적 벌 수행은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만 키워주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는데, 상벌점제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 이상호(2009), 「性說을 통한 현대인의 삶의 분석」 『儒敎思想研究』 第35輯, p.292

Ⅲ. 결론

최근 우리 국민들이 보는 뉴스는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이야기를 다루는 기사 보다는 사건과 사고와 같은 눈살을 찌푸리는 기사를 중심으로 내 보내고 있다. 뉴스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쌓아 나가기보다는 불안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불신부터 하게 되었다. 사회 분위기는 교육으로 이어진다. 인성 교육 또한 공자나 맹자가 제시한 인의예지 본성에 대한 믿음을 통한 자율성 회복과 자기 성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순자가 제시한 법과 제도의 정비 및 제정을 통한 형식적인 인성교육을 더 중시하고 있다. 형식적인 인성교육만 강조하게 되면 인간은 소극적이고 타율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법망만 피하면 얼마든지 나쁜 짓을 자행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 따라서 법과 제도에 의한 지금의 형식적인 인성교육의 밑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학생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인성교육이어야 한다. 주변국에 대한 치밀한 경계심 부족으로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당했다. 일본 식민지 생활 35년 청산 이후에는 동족간의 6.25 전쟁을 겪어야만 했고, 전쟁 복구와 경제 성장을 위해 숨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세계화로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학생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바탕을 둔 자율성을 강조하는 인성교육이 보완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은 자녀를 믿지 못한다는 점이다.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녀는 그 틀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학교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학생들은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존재로 전락했으며, 자율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지 못하고 있다. 순자의 성악설적 사고방식처럼 인간을 불신하고 타율적인 존재로 간주하게 되면 정해진 규칙과 틀 속에서 제한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자기 확신이나 자신감, 자존감 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공자가 제시한 인(仁)의 실현과 맹자의 성선설적 사고방식의 적용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공자와 맹자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은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나 난관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끝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셋째, 불신 풍조가 만연한 사회일수록 순수하고 변함없는 본마음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이해득실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익만 중시하게 되면 쓸쓸하고 적막한 삶이 될 수 있다. 해결책은 자신만 이롭게 하려는 욕심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생공존하려는 본심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본심은 인의예지 본성에서 곧고 바르게 발현된 측은지심·

수오지심·사양지심·시비지심 등을 말하는데, 본성에서 본마음으로 발현되도록 순간순간 오롯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이기적 계산에 의해 이기적 욕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경(敬)의 상태를 늘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회복되면 도덕적 공감 능력이 확충되어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따뜻한 마음이 나오게 된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참고 문헌

『周易』, 『論語』 『孟子』 『荀子』 『小學』

손병욱 외(2016), 『융복합 시대의 인간과 윤리』, 경상대학교출판부, 경남 : 진주.

이기동(2010), 『論語講說』, 서울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이기동(2015), 『진리란 무엇인가』, 21세기북스.

이상호(2005), 「맹자의 호연지기 함양에 관한 연구」 『東洋哲學研究』 第41輯,

이상호(2009), 「性說을 통한 현대인의 삶의 분석」 『儒敎思想研究』 第35輯,

이상호(2015), 「공자의 윤리 상담에 관한 연구」 『東洋哲學研究』 第81輯,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 Education of Confucianism

Lee, Sang-Ho

There can be multiple paths to climb the summit. Certain lengths are not always right. There ar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for each route. Generally, in Confucianism, Confucian four basic qualities of humanity,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granted from the heaven are recognized as human natures. Confucian character education is divided into character education of Confucius, Mencius and Xunzi.

Confucius suggested preponderance in the ability of moral empathy based on love, character education based on the naturalness of humanity, emphasis of autonomy, and character education to the level of the disciples. Mencius emphasized Confucian four basic natures of humanity,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recovery through the expansion of Confucian four basic natures, and the life of great man through Hyeonjigi recovery. Xunzi claimed that in order to basically heal social confusions, the evil nature should be changed to the good one by artificial efforts such as courtesy forms or procedures.

The times and circumstances in which Confucius, Mencius, and Xunzi lived can be different from today. But the important message of the character education that the three thinkers proposed to settle the confused society and make it into a beautiful world where people can live a life worthy of the name of man needs to be reassured enough to give us many suggestions today.

Key words: character education, Confucian four basic natures of humanity,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仁義禮智), ability of moral empathy (仁義禮智), autonomy, expansion of Confucian four basic natures (四端), artificial efforts

논문 투고일: 2016. 09. 17.

심사 완료일: 2016. 11. 22.

게재 결정일: 2016. 12. 10.